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① ; 제6회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책임자 대회

문화관광부는 전국의 문화기반시설과 기초단체의 2002년도 관리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39개 시설 및 기관을 수상대상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분야별 시상대상 선정결과를 보면 도서관분야 최우수상은 “대구효목도서관(대도시부문)”, “강원춘천시립도서관(중소도시부문)”, “경남창녕도서관(농어촌 부문)”이 선정되었고, 문예회관분야 최우수상은 “부산문화회관(대도시부문)”, “경기 의정부예술의전당(중소도시부문)”, “해남문화예술회관(농어촌부문)”이 선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대도시부문)”, “제주도 제주시(중소도시부문)”, “제주도 북제주군(농어촌 부문)”이 각각 분야별로 선정되었다

특히, 이번 수상대상기관중 지자체 중소도시부분 최우수상을 받은 제주시는 지자체, 문화기반시설, 관련 공무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연간 총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확대('02년 8.1% → '03년 8.8%), 도서관·문예회관 등 각종 문화시설 조성 추진, 시민박물관 대학 등 200여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문화관광 육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오으로써 각 평가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제주도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농어촌 분야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는 등 도내 4개 시·군 중 3개 시·군이 수상하는 저력을 보여 명실상부한 문화관광 지자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굳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도서관 대도시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대구 효목도서관은 점자자료실 구축과 시각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교양강좌를 실시함으로써 큰 점수를 받았으며, 문예회관 중소도시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의정부예술의전당은 민간 외부 공연기획 전문가(구자흥, 58세)를 책임자로 영입, 독립경영 체제로 운영

하여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02년간 공연일수 202일, 연관객 189,203명을 유치하는 성과로 인해 문예회관 운영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 중하위권의 평가(총400점중 300점이하)를 받은 문화 기반 시설이 대부분 중상위권(300점이상)의 점수를 받음으로써 전반적으로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면에서 개선된 면모를 보였다.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는 지난 1998년부터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기초단체 등 5개 분야를 실시해왔으나 평가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부터 분야를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였다. 금년에는 공공도서관 462개소, 문예회관 113개소, 지방자치단체 232개 단체 등 총 800여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초부터 10월말까지 서면조사와 현지실사, 종합평가 등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우수시설 및 기관을 선정하였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최우수상의 경우 지역구분을 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과 분야별 순위를 상위 30~50% 정도 공개하기로 하였다. 내년에는 지자체, 박물관, 문화의 집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관광부는 2003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춘천시 춘천문예회관에서 전국문화기반시설책임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상을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내년 초에 1~2천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 명목의 인세티브 예산(지자체 제외)을 지원하게 된다.

〔기사 제공 :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 전화: 02-3704-9452〕